

## 제 1강 : 『제국』에 대해서

### ◆1교시: 강의소개

#### ▲첫인사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지원에서 만나 뵈게 돼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가르친 적도 있고, 또 대학에서 가르친 적도 있고 한데 다지원에서 만나는 건 좀 특별한 만남인 것 같아요. 제도 공간이라고 하는 건 어쨌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체제 속에서 뭔가 출세라거나 아니면 돈을 번다거나 권력을 획득한다거나 이런 식의 실리적인 이득관계, 이게 어쨌건 중심에 놓여있는데, 다지원은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불행하게도 아무것도 제공해주는 게 없습니다. 자격증을 주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성적이 우수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할 수 있는 소소한 이득들이 별로 없죠.

근데 또 한편에선 다행스럽게도 그런 실용적 이해관계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는 가장 좋은 자리가 아닌가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후자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다지원에서 만난 것이 참 특별하고 반갑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잠깐 제가 이 강의를 맡게 된 경위랄까요. 그거를 좀 소개를 드리고, 제 소개를 잠깐 곁들여서 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같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간단하게나마 인사를 나눌 겸해서 자기소개를 하고 해서 우리가 다루는 주제, 지금 책으로 치면 한글번역본은 이렇게 나와 있는 책입니다. 『제국』이라고 해서. 부피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590 페이지정도 되니까. 양적으로도 만만치 않은데다가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사전에 정치철학적 환경에서 오래 공부를 하신 분들이야 충분히 자기가 공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휘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여기에 적혀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의 외래어(외국어)나 마찬가지로인 셈이죠. 우리는 한글 책을 봐서 한글로 다 써어 있지만 사실은 외국어를 배우는 거죠. 언어를 배우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영어로 되어 있는 원본인데, 표지는 똑같은 모양입니다. 하버드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책인데, 부피가 더 묵직하게 생겨서 사람들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강의를 끝나고 나서 연이어서 멀티튜드Multitude라는 책을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 멀티튜드라고 하는 책은 이 책의 제2부라고 보면 됩니다. 이 책이 현재의 세계질서, 우리가 어떤 세계 속에 살고 있는가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일종의 객관성을 띠는 질서의 객관적 측면을 다루고 있는 거라면, 이 책은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주체를 그려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멀티튜드라고 하는 게 다중지성의 정원이라는 타이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 다중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멀티튜드라는 책이 2004년 8월 초에 나왔는데, 아직 출판이 한국어로는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저하고 여기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정남영 선생님하고 같이 또 서창현 선생하고 세 사람이 공동번역을 해서 세종서적에서 곧 출판이 될 것입니다. 원고는 작년 겨울에 넘겼는데, 세종서적의 출판사 내부사정으로, 직원들이 다 사퇴를 하는 바람에 지금 재채용을 해서 다시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사정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연이어서 2부로 강의를 되면, 어쩌면 제국과 다중이라고 하는 두 주제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과 또 미래전망 양자를 다중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는 총체

적 시야를 확보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특별히 이거는 제가 두 권을 앞서 정독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강력한 시야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줄 것이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일단 그러한데요.

제가 이 강의를 맡게 된 거는 1990년대 초에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난 이후 그 전에 저는 혁명적 사회주의자로 자처를 했었고, 또 혁명적 사회주의정당 건설에 투신을 해서 80년대 내내 나름대로 활동을 했었는데, 뭔가 변화하는 현실에 뒤져있다는 느낌을 확연하게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색과정에서 95년도에 들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 전의 활동들을 다시 성찰하고 새로운 사유, 새로운 활동의 길잡이로서 배울 것이 많다고 느꼈던 운동이 이탈리아의 자율주의운동이었습니다.

자율주의운동은 아우또노미아운동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10여 년간 공부한 결과를 아우또노미아라는 제목으로 묶어서 책으로 낸 적이 있는데요. 아우또노미아운동이 이탈리아의 국지화된 그런 운동을 넘어서 사실상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를 들여다보면, 전세계속에 유사한 경향, 다 다르긴 하지만 유사한 경향이 거의 전지구적차원의 확장되어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여기에 상당히 많은 거를 내가 도움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핵심적인 인물이 안또니오 네그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좀 있다 안또니오 네그리에 대해서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부터 10여년 정도 저로서는 안또니오 네그리와 그 관련되는 저작들, 그의 저작들, 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연관 저작들을 나름대로 섭렵을 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를 했어요. 그게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네그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먼저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라면 자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로서는 또 각자의 자기의 체험이라거나 자기 삶의 이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은 여러분들이 직접 같이 책을 읽어 가시면서 저와는 다른 느낌들, 다른 생각들, 다른 관점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다른 관점이 생기는 거는 그 차이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생산적 관계, 이게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해서 저로서는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 ▲네그리

지금 이제 무엇이 과연 저를 이끌었는가 하는 문제는 조금 있다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 속에서 제 이야기를 밝힐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일단 이야기를 해도 될 거 같은데요. 특별히 최근에 질 들뢰즈라거나 또 가타리라거나 이런 사람들의 관점이 매우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네그리의 정치철학은 들뢰즈나 가타리의 사유가 형성되는 데에 1950년대 60년대에는 영향을 주었던 그러한 생각이기도 해요.

그래서 들뢰즈는 『천개의 고원』 같은 책에서 네그리나 반제리나 트론티라거나 알콰티라거나 아마 지금 열거하는 이름들은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실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해요. 언어장벽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사람들의 사상은 영어로 번역되지 않는 한 잘 알려지지 않죠. 한국의 사상들이 해외에 잘 안 알려지는 것처럼 언어불평등 현상인데, 여하튼 이탈리아운동에서는 쟁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빠라이스모Operaismo라고 하는, 영어의 operation할 때 오빠라이입니다. 작동하다. 노동하다. 노동자주의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이게 50년대 말 60년대에 이탈리아에서 싹텄고 네그리도 이 운동중의 일원이었어요. 나중에

는 아우또노미스트로 진화했지만 말이지요. 이 운동을 들뢰즈는 공공연하게 자기와 같은 사유맥락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들과 자기 자신 사이의 공명 관계, 친화성을 고백을 한 달까요? 하여튼 인정하는 그런 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네그리는 1980년대에 정치적 사정으로 인해서 프랑스로 망명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펠릭스 가타리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펠릭스 가타리의 형 이름으로 된 아파트에서 일종의 수배생활을 했거든요. 망명생활을 했어요. 가타리가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라서 네그리가 신분증이 없으니까 자기 형 신분증을 빌려줘가지고, 아주 안전하게 프랑스에서의 도피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그쪽의 소위 post-structuralism이라고 부르는, 포스트구조주의 서클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면서 서로 토론도 하고, 논문발표도 같이 하고 이런 식의 작업을 하면서 포스트구조주의 영향을 역으로 받게 됐죠. 받게 되면서 지금 네그리하고 들뢰즈는, 들뢰즈가 순수철학이라고 할까. 이쪽에서 상당한 한국사회에서도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하고 네그리의 자율주의적 맑스주의하고는 일정한 친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학기는 들뢰즈에 대한 강의를 했었는데요.

#### ▲우리가 네그리에 주목하는 이유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우리한테 주목되는 이유는 9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네그리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아무도 알지도 못했고, 사실상 주목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 하는 식의 반응들이 일반적이었는데, 1999년의 시애틀 투쟁이후 일련의 대항지구화운동 혹은 반지구화운동이라고도 하죠. 이런 대항지구화운동이 전개되면서 이 대항지구화운동의 내적사상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률적으로 하나로 정해진 지도이념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분명히 20세기에는 맑스-레닌주의라고 부르는 지도이념이 있어가지고, 맑스-레닌주의가 적어도 수십 년 동안 급진적 사회운동을 대표하는 그런 사상이었었는데, 적어도 그런 식으로 대표하는 기능을 했던 건 아니지만, 대항지구화운동을 들여다보면, 이 운동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암묵적으로는 네그리나 들뢰즈의 사상을 자기가 기어이 거부하려고 하지는 않는 그런 축이며, 좀 더 중핵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조류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중심에 서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좀 갑작스러운 진화를 해서 1995년도 전후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어쩌면 사회운동전체에서 일단 네그리, 들뢰즈를 경유하지 않고는, 이게 찬성하던 반대하던 간에 흔히 속어로 말 빨이 안선다고 하죠. 말 빨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경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 시기의 진보운동의 일종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맑스코뮤날레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들어질 때는 좀 정통적인 그런 조류가 주류였었는데, 그게 2002년, 3년경이었으니까요. 2005년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오히려 그 부분이 소수파가 되어버리는 역전된 현상이 나타납니다.

서구의 경우에는 더 일찍이 그랬다고 봐야겠죠. 68년 이후 3,40년간에 걸쳐서 굉장히 빠르게 역관계의 변동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사회운동들, 1989년의 베를린 장벽, 그 다음에 92년의 로스앤젤레스 봉기, 93년의 사파티스타 시아파스의 봉기, 95년, 6년도의 공공부문 파업들,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애틀에서 퀘벡으로 이

런 식으로 이어져 온 제네바로 이어져 온 대항지구화운동의 흐름들, 그리고 2003년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시위의 물결들, 이런 것들이 다 네그리나 들뢰즈의 사상과 어떤 방식으로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이건 아니면 아주 익숙한 이야기건 상관없이 현대세계에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상당히 주목되는 담론이자 또 실천경향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네그리하고 정치하고의 관계, 정치라고 하면 우선은 요즘은 좀 코미디화되고, 희극화되었죠.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어떤 장, 우스운 장, 그래서 연예인들이 노는 모습이나 정치가들이 노는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은, 근데 연예인들은 즐거움을 주는데, 정치가들은 좀 역겨움을 주는, 그런 장으로 바뀌었는데. 제국이라는 책에서는 왜 정치가 그렇게 되가는가에 대한 설명이 4부에 가면 쪽 나옵니다. 현대 부패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어쨌든 정치를 네그리가 들뢰즈와는 달리 상당히 강하게 강조한다고 해도 그 정치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간의 인간에 대한 지배활동으로서의 정치하고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거, 그 점을 하나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강의를 진행하며

그 다음에 맑스라고 하는 인물은 많이 오해가 되고 있는데, 결코 우리가 버리고 취하고 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맑스라고 하는 사람의 필생의 노력들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맑스의 주장중에는 우리 시대에 더 이상 걸맞지 않는 주장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시대를 바라봄에 있어서 그 어떤 사람도 제공하지 못할 입장들, 또 경향들, 이것을 제시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간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정기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불어를 가르치고, 루드님은 이전에 에스페란토를 가르치다가 이번에는 미국 드라마 가지고 영어를 또 맡게 되고, 또 소연님 같은 경우는 여기 강좌관리자이면서 상임강사로 있는데, 다지원에서는 강좌 관리하는 분들이 다 자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다지원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센터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세미나를 하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기현 선생님한테서 불어를 배웠어요(작년에). 앞으로도 배우 계획을 저는 갖고 있는데, 덕분에 하여튼 제 불어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학기에는 정액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여러분의 강의를 제가 수강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왜인가하면, 여기 오시는 분들의 생각이 확일적으로 말하고, 뭔가 선별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대의 중요한 그 생각들을 공부해오고 또 표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번 기회에 여기서 이거 배우지 않으면 언제 또 이 기회가 올지 모르겠다 싶어 가지고, 일단 힘이 닿는 한 배우고 있고요. 저는 이 강의를 하기 전에도 해러웨이 강의를 두 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굉장히 영감을 많이 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책으로 읽는 것하고 이야기를 듣는 거는 상당히 다른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책으로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하고, 또 어떤 강사분이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사이사이 틈새 속에서 생각해가면서 이렇게 대화를 마음속의 대화와 실질적인 질문을 통한 대화를 하는 거는 또 다르단 생각을 해요. 뭐가 더 낫고 못하다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상이한 그런 활동양식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렇게 모이신 분들이 때로는 이 역할을 맡고, 때로는 저 역할을 맡으면서 배역을 달리하면서 흥미로운 연극을 꾸려나가는 그런 배우들로서, 액터로서 지금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자기소개를 마치고요. 아까 자기소개과정에서 희망들을 좀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건 최대한 강의과정에 반영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빠진 거는 또 질문을 통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 ◆2교시 : 이탈리아운동, 네그리와 하트 소개

### ▲『제국』의 저자소개

우선 제국이라는 책을 읽기 시작할 터인데, 제가 권장하는 것은 다음번에 뭘 하겠다는 거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을 꼭 좀 읽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이야기를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쉬워질 테이고, 그 다음에 토론의 질이라거나 그런 것들도 훨씬 더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터이니까 이번 기회에 한 번 이렇게 8번 정도면 두 달 정도 되잖아요. 꼭 한 번 읽어서 제가 강의시간에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다시 말해서 집에서 혼자 텍스트를 혼자 읽으면서 떠오르는 질문도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응답을 할 수 있는 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책을 지은 두 사람의 살아온 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여기 지금 안토니오 네그리A. Negri하고 마이클 하트M. Hardt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어식 이름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나라라고 했죠?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했죠.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미국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지금 같이 책을 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주요한 저작들, 예컨대 『천개의 고원』이나 『앙띠 오이디푸스』 같은 경우에는 가타리하고 들뢰즈가 같이 썼는데, 두 사람 다 프랑스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탈리아 사람 한 사람하고, 미국 사람 한 사람이 같이 협력을 해서 공동저작을 했어요. 물론 저기 내려가면 맑스하고 엥겔스가 공동저작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공산당선언』 같은 경우에도 맑스-엥겔스의 공동 서명으로 나가고 『도이치 이데올로기』 같은 경우에도 그러하고, 『자본론』의 경우에는 맑스가 혼자 썼지만 1권만이 맑스의 단독 저작으로 출판이 되었고, 2권하고 3권은 남은 원고, 노트에 기초해서 엥겔스가 몇 년 동안 가필을 하고 문장을 다듬고 해가지고 출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엥겔스의 말하자면 생각이 상당히 깊이 투입되어 있는 책이죠. 그래서 2,3권, 특히 3권 같은 경우에는 엥겔스 저작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 편집의 방향이라거나 그게 엥겔스의 관점이 워낙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엥겔스는 생각을 아주 명료하고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맑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놓치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경향을 갖고 있어서 누가 과연 진정한 저자인가. 이거는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책인데요. 여하튼 그 두 사람도 독일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서로간의 민족, 국가, 출신, 혈통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쓴 겁니다. 뒤에 보면 이종혼합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종혼합적 저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네그리에 대해서

네그리는 1933년에 태어났으니까 지금 나이가 일흔 한 네댓 정도 됐는데, 아직도 정력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등 중남미를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활동하는 학자와 함께 『GlobAL』이라고 하는 책을 써냈어요. 이게 AL은 라틴아메리카를 말하는데 우리는 LA라고 적는데, 아메리카-라틴해가지고 라틴아메리카의 지구화인데, 라틴아메리카를 중심에 놓고, 지금 현재 지구화의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를 분석한 저작인데, 아직 번역은 안 되었습니다. 갈무리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어서 지금 번역을 진행 중인

상태이고요. 이렇게 칠십 중반이 됐는데도 집필활동이나 강연활동에 열심인,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건강을 굉장히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1950년대부터 이탈리아 사회당 활동가였어요. 대학 다닐 때부터 사회당의 대학생신문을 편집하는 편집장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 전에는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가톨릭 사회운동단체의 멤버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대학생활 이후에 사회당 관련 활동으로 인해서 졸업 이후에도 이탈리아 사회당 소속으로서 <일보>라고 하는 잡지를 편집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1963년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기억을 하세요? 이탈리아의 정치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때인데.

#### ▲오빠라이스모에서 아우또노미아까지

소위 역사적 대타협이라고 하는 정치가 일종의 전략이라고 보죠. 기독교 민주당하고 이탈리아 사회당이 연합을 해서 계속 야당으로 남아있던 사회당이 여당으로 편입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국가를 매개로 하는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타협정치, 이게 발생하게 되는데, 63년이 바로 분기점이었죠.

그런데 역사적 대타협 전략으로 이탈리아 사회당이 노선전환을 했을 때, 네그리는 탈당을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마르케라화학공단에 자기의 애인이었던 사람과 같이 가서 맑스의 자본론 교육활동을 쭉 해오면서 아까 얘기했던 오빠라이스모, 노동자주의 조직들, 그게 주로 잡지 발간하는 걸 가지고 움직였었는데요. 조직들과 연계해서 활동을 했어요.

근데 1973년에 이탈리아에는 사회당이 있고, 공산당이 있습니다. 공산당의 경우에는 예컨대 우리가 많이 아는 이름들이 있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들어보셨죠?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소련으로부터의 일정한 독자성, 소련의 가장 많이 예속되어 있었던 공산당이 프랑스 공산당이었고, 이탈리아 공산당은 스페인 공산당과 더불어서 소련의 스탈린정치를 많이 비판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보르디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고, 보르디가 같은 사람은 레닌시기부터 레닌을 비판해가지고 당내투쟁에 밀려가지고 출당당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어튼 이 공산당은 기민당하고 연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으로 남아있었거든요. 73년에 역사적 대타협 노선의 주변부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사실 타협권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기민당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잃어버릴 수 있다 해가지고, 공산당과 결탁했다는 이유로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여당을 지지하지만 조직적으로는 거기에 참가하지 못하는 그런 식의 약간 비참한 상태에 공산당이 놓여 지기 시작하는 게 73년이었는데, 73년까지 약 10년 동안은 아까 오빠라이스모, 노동자주의 활동가들은 공산당과 일단 일정한 연계관계를 갖고 때로는 공산당으로부터 지원도 받고, 또 때로는 공산당을 지원도 하면서 활동을 해오다가 73년도 이후로 오빠라이스모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왜냐 하면 일부의 사람들은 공산당이 이런 식으로 준 여당으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굳이 바깥에서 이렇게 급진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입당전술을 주장을 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트론티Tronti라는 사람이었어요. 트론티가 사실 오빠라이스모 활동가들 중에서는 가장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입당 쪽으로 기울 때에 네그리는 입당거부를 하고, 이때부터 아우또노미아Autonomia 쪽으로 나가는데요. 아우또노미아가 구

체적인 형태를 갖춘 게 1977년 운동 때였어요.

#### ▲이탈리아운동의 특징

77년 운동은 프랑스에서 68년 5월 혁명이 한 달 동안 만에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파리 근교의 대학에서 시작된 게 수도로 들어왔지만 공산당과 사회당 당원들의 선거전술에 휩쓸려가지고, 포섭이 되어서 총선거 쪽으로 흡수되어버리고, 그리고는 선거가 있고, 맨 처음에는 드골이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는 퇴진되게 되지만 말이죠. 그 68년 5월부터 6월 약 18일 20일 사이에 사실상 프랑스 운동은 끝이 나죠.

그런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1969년도에 프랑스에서의 5월 혁명과 같은, 그런 아래로부터의 커다란 저항운동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탈리아의 운동을 늦게 오는 기차라고 부릅니다. 연착을 해가지고 한참 있다가 1년쯤 뒤에나 찾아왔다. 라는 뜻으로.

6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정점을 이루었던 시기가 바로 1977년이에요. 프랑스 운동은 1년에 끝났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약 10년을 끌게 되는데, 79년 4월 사건까지, 이 4월이 소위 알도 모로 수상 납치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탈리아에는 <붉은 여단>이라고 하는 테러조직이 있었죠. 일본과 독일의 적군파와 비슷하게 그 세 나라가 테러조직으로 유명한데, 이 붉은 여단이 그때 당시에 수상인 알도 모로를 납치해서 살해한 사건이에요. 79년 4월에 정부가 바로 알도 모로 수상 납치 사건을 빙자해가지고 급진운동권 전체를 일망 타진했던 게 79년 4월이었습니다.

한국에는 86년 12월에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86년 11월 달에 구학년이 주도했던 건대사건이 건대에서 약 1200명가량 되는 학생들이 그때 구속되었던 때가 있었죠. 헬리콥터가 동원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86년 12월에는 ND PD쪽의 조직들이 CA를 비롯해서 완전히 다 검거되어 가지고 저도 그 무렵에 구속이 됐지만 말이죠. 어쨌건 서울구치소에는 한국의 운동권 핵심인자들이 그때 그냥 다 몰려있었던 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게 87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한국의 86년 말하고 이탈리아의 79년 4월이 아주 유사한 상황입니다.

근데 각설하고 69년부터 79년 4월까지 약 십여 년간에 걸쳐서 이탈리아에서는 끊임없는 격변이 일어나요. 한국에서는 91년 5월 정권식 총리에 대한 밀가루 투척사건으로 인해서 그거 이후로 학생 운동권을 비롯한 사회운동 전체를 이데올로기적으로 탄압하고 그 때 이후로 정세가 확 꼬꾸라졌는데요. 어쨌건 이런 식의 격전이 십여 년간 전개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운동이 굉장히 지구력 있고, 생명력 있는 운동으로 남아있고, 중요한 이론들이 여기에서 싹터 나왔죠. 68년 5월 사건이 우리가 읽고 있는 사람들, 들뢰즈-가타리는 말할 것 없고, 장 보드리야르라거나 보드리야르는 그 보다 더 일찍입니다. 50년대 상황주의 운동에 관여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스트로 알려진 료따라거나 카스토리아디스라든가 이런 일련의 새로운 유형의 사고법을 지적으로 산출했는데, 미국을 포함하여 영국, 영미권 전체가 지금은 프랑스 68운동이 낳은 그런 지적인 여파, 이것에 수동적으로 수용자적 입장에 사실은 놓여있는 상태죠. 근데 이탈리아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탈리아는 프랑스하고는 다른,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사유 흐름이 있어요. 운동 흐름도 있습니다.

아우또노미아가 80년대에는 DIY운동이라고, Do It Yourself, 가구에 지금 사용되는 거죠.



Do It Yourself운동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소그룹적인 방식으로 살아 움직이는 작은 그룹들의 분산된 운동은 80년대를 경유하고 나서 90년대 들어가면 소셜센터운동, 사회센터운동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이게 수도권의 공동화과정. 그러니까 공공건물들이 한국도 마찬가지로 만충도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탈리아에서도 수도권을 비우고 그 외곽으로 공공기관들이 이전하게 되고, 중앙에 빈집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빈 사무실들이 생겨나게 되니까. 그거를 점거해가지고 이주노동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터키에서 이주해온 사람들,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집을 못 구한 지방의 유학생들이라거나 집에서 남편하고 싸우다가 폭력을 피해가지고 도피한 주부들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상당히 수평적이고, 연대적인 그런 공간을 만들어나가는데 이게 소셜센터입니다. 지금도 이탈리아는 소셜센터가 전국각지에 있어요. 빈집을 점거해서 쫓겨나면 또 다른 곳을 점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메뚜기 떼 같은 그런 식의 운동을 해가고 있는데, 이런 SC운동,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나름의 운동의 맥을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천적인 흐름 속에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사상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네그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자율주의적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지난해, 2005년이니까 지지난해죠. 지지난해 초에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탈리아현상이라고 하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왜 그런 게 열렸냐 하면, 들뢰즈-가타리를 비롯한 한국의 90년대 한꺼번에 소개된 주요한 이론들, 아까 말한 보드리야르라거나 료따르라거나 이런 사람들, 또 상황주의자 기 드보르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1900년대 말까지 다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부상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탈리아 사람들이에요.

네그리도 그렇지만 빠울로 비르노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마우리쥬오 라짜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상하게 되고, 여기에 최근에는 아감벤 같은 사람이 가세를 하면서 이천 년대 초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서구사회에는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나 이런 한국이나 일본 같은 지적인 풍향이 애매한 부분들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대체 이탈리아가 뭐였기에 새로운 세계에 들어와서 이렇게 강력한 목소리를 내느냐. 이 현상을 토론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열렸었는데요. 그런 정도로 지금 이탈리아의 역사적 흐름이 고유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깊이가 있고, 프랑스 지성계조차 흡수되지 않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상태이죠.

#### ▲네그리: 프랑스 망명생활과 자진귀국하기까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그리는 아우또노미아, 아우또노미아는 여성운동과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융합이었어요. 그래서 네그리는 여성운동과 학생운동으로부터 이걸 통해서 노동운동의 일정한 경직성과 편향성을 이렇게 교정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게 돼서 페미니스트들하고 협력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달라코스타 같은 사람들이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 식의 페미니즘 또 학생운동 등의 영향을 받아들이면서 77년부터 약 2년 동안 이탈리아의 거의 이종권력 상황을 가져왔다고 봐도 좋아요.

이탈리아 정부가 거의 무정부상태로까지 들어갈 정도로 아우또노미아권, 아우또노미아권이라고 하는 게 네그리가 다 끌고 오는 건 결코 아니었는데요. 다양한 페미니즘, 학생운동,

생태주의자들, 게이, 레즈비언 활동가들 등등의 다양한 조류의 활동가들의 에어리어area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네트워크라고 표현하는, 그때는 권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운동권할 때 권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권으로서 존속했었고, 그 만큼의 다른 사회에 비해서.

어쩌면 이중권력상황은 1917년 4월에 러시아에서 조성이 된 바 있고, 1921년에 독일에서 이중권력 상황이 레테라고 하는 평의회가 아래쪽의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중권력이 생긴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처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왔었다고 할 수가 있었죠. 그만큼 정부가 당황하고 놀랬었기 때문에 79년 4월 사건이 굉장히 잔혹한 방식으로 전개되어서 이때 당시 1500 명의 활동가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아직도 150명 정도는 출소를 하지 못 하고 감옥에서 살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그리는 이때 알도 모로 수상 납치사건의 주모자로 몰려가지고 사실 붉은 여단하고는 직접적인 연계관계가 없고 붉은 여단의 노선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들도 많이 썼었는데, 항상 국가정치란 그게 아니잖아요. 엮어서 때리죠. 그래서 알도 모로 수상을 납치하기 위하여 수상집으로 걸려온 전화의 음성이 바로 네그리의 목소리였다. 그래가지고 성분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김기훈 유서대필사건을 방불케 하는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 암살자로 기소가 됐었어요.

그래서 네그리는 79년도 4월에 일단 구속이 되었는데, 옥중에서 이탈리아 신생정당인 급진당의 후보로 출마를 해가지고 국회위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면책특권으로 석방이 되었어요. 6개월 동안 바깥에서 연설을 하면서 자기의 무고함도 얘기할 기회를 가지고 했는데, 소수정당이기 때문에 표는 별로 많이, 당연히 얻지 못했죠. 그러면서 선거결과가 우파정당에 유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네그리의 면책권을 갖다가 회수해야 된다는 식으로 의회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을 보고는 불안감을 느껴서 밀항을 해가지고 프랑스로 망명을 한 게 84년 말이었습시다. 그렇게 해서……. 이탈리아의 정치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우리하고 비교해서요? 이탈리아는 적어도 민주화의 정도로 보면 예컨대 지금의 우리 정도로 진보된 민주정치 유형을 갖고 있었죠. 왜냐 하면 사회당이나 공산당이 여당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랬는데 이탈리아의 법제는 굉장히 독특해서 재판 없이 거의 3년 정도는 구류를 할 수 있는 식으로 법이 되어 있어요. 한국은 그게 재판 없이 6개월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6개월 이내에는 재판이 끝나가지고 그게 어쨌건 실형이건 집행유예건 무죄건 등등해서 결심이 나야 되는데 이탈리아는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장기구류가 가능한 식으로 되어 있었죠. 그 법제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탈리아가 마피아와의 싸움이 있어가지고, 특수한 환경에서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법제적인 것만을 제외한다면 우리보다는 당연히 더 민주적인 풍토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이탈리아 헌법 같은 거는 44년에 만들어졌는데, 노동헌법이라고 해서 사회주의헌법에 육박할 정도로 민중들의 권리를 강하게 인정해주는 그런 틀이거든요. 조금만 더하고, 네 그리까지 얘기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로 망명한 83년도 이후에 가타리를 만나서 도움을 받고 그리고 얼마 뒤에는 프랑스 파리 10대학에서 신분보장 없는 정치학 교수로서 제자들을 키워냈는데요. 그 중의 한 사람이 바로 마이클 하트입니다. 나중에 마이클 하트는 좀 있다 다시 하고.

1997년 7월에 이때에는 이탈리아 선거가 있었고, 올리브나무당이라고 하는, 이 당이 전신

으로 보면 이탈리아 공산당입니다. 이탈리아 공산당이 사실상 집권을 한 선거였어요. 공산당의 이름으로 집권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네그리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공산당이 집권을 했으니까 정치적인 분위기로 보면 자기가 귀국을 한다 하더라도 유화적 평결이 나지 않겠느냐 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97년이 되어서 공산당이 집권을 했는데도 자기의 동료들이 상당수 감옥에 남아있는 그 현실, 그때 당시 97년도에 500명이나 남아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라는 판단에서 자진 귀국을 하게 돼요. 14년 만에 자진귀국을 했는데, 공항에서 바로 체포되어 가지고 구속되었고, 이전에 네그리가 없는 상태에서 권석재판이 80년대 초에 있었었는데, 그때 33년 몇 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습시다. 권석이니까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일단 이 사람의 형은 33년 몇 개월이었어요. 재판을 받았는데, 그 간의 망명생활이라거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알도 모로 수상 납치에서의 암살모의혐의는 무죄로 평결이 나게 되면서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97년도에).

그러고 나서 5년 동안에 일단 2년 동안 구속생활을, 감옥생활을 하고, 약 2년 정도는 집으로 출퇴근 하는, 밤에는 감옥에 있고, 낮에는 집에서 생활하는 그 출퇴근제 구속생활을 하고, 마지막 1년 동안은 가택연금으로서 집에만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하다가 2003년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자유로운 삶을 구가하고 있는데, 어쨌건 네그리는 일생이 감옥에 있거나 망명생활을 하거나 이런 게 대부분의 삶이었어요.

#### ▲네그리와 하트의 만남, 그 이후

근데 하트하고의 만남은 프랑스에서 교수를 하던 때 이루어졌는데, 마이클 하트는 미국에서 영문학을 공부했던 학생이었어요. 졸업을 하고나서 사회운동에 투신하기 위해서.

이 사람도 가톨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멕시코 쪽에서 미국으로 불법이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잔혹하게 취급이, 붙들리면 상당히 호되게 당하기 때문에 피난처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숨겨주기도 하고, 재워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가톨릭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 피난처운동에 가담을 해서 여기에서 잠깐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좀 다른 길을 개척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탈리아의 자율주의 운동이야기를 듣고, 이탈리아로 직접 건너가서 이탈리아에 있는 태양열을 이용한 건전지 만드는 공장의 노동자로 취업을 해서 거기에서 현장노동자로 꽤 오래 일을 하다가 이탈리아 운동권을 쪽 보니까 네그리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자기가 배울 게 있겠다. 판단을 하고서는 그 사람 소재가 프랑스라는 거를 알고는 프랑스로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네그리를 만나가지고 네그리를 지도교수로 해서 『들뢰즈 사상의 진화』로 출판된, 이게 일종의 철학에서의 도제수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원래 나왔는데, 박사학위논문입니다. 박사학위논문의 첫 부분이거든요(들뢰즈를 다룬 부분). 두 번째는 오빠라이스모에서 네그리로 나아가는 그 흐름을 그리고 있는데 그건 박서연님이 번역중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을 해서 학위를 따고, 미국으로 돌아가 가지고 강사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죠. 그러면서 가르친 거는 주로 비교문학이었어요. 비교문학이라고 하는 게 일종이 혼종학문이죠. 그래서 영문학, 국문학 이런 것도 아니고 서로 다른 것들을 비교해가지고 그 차이 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생각해내는 학문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적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연대에서 비교문학 협동과정에서 가르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문과

대학생이 별로 없어요. 법대생, 그 다음에 사회학과 학생들, 이런 사회과학 전공한 친구들이 더 많고, 국문학이라거나 영문학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외려 거의 없는 독특성을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그런 유형의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중인데, 듀크대학인데요. 그러면서 네그리의 97년도 귀국과정이라거나 일련의 사면운동들에 앞장서가지고 네그리의 생각을 전세계에 영어로 유통시키는 작업을 하트가 했습니다. 하트가 굉장히 문장력이 좋습니다.

만약에 네그리 혼자였다면, 네그리는 지금 우리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트가 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문장력이 대개 좋고, 여러분들이 제국, 이건 한글로 씌어져 있고, 저건 영어로 씌어져 있는데, 영어를 잘 알고 분들은 한글로 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영어가 훨씬 더 부드럽고, 음악적인 문체에다가 명료하게 전달하는 그런 문장을 구사하고 있거든요. 그건 멀티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 읽으면 대개 어려운 것도 영어로 읽으면 쉽게 들어오거든요. 글을 아주 잘 쓰고, 공을 많이 들이고, 멀티튜드의 서문에도 나오지만 하여튼 누구든지 읽어서 자세히 읽으면 이해할 수 있게 이 책들을 자기는 쓰려고 노력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잠깐 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음미하듯이 이 문장들을 하나하나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썼다는 거죠. 물론 그건 노력하고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맑스도 자본론의 초고인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를 내고 나서 엄청 욕을 먹었거든요. 대체 누구 알아들으라고 썼느냐 해가지고 정식으로 내면서는 노동자들이 하나도 배운바 없는 노동자들이 읽어서 이 자본론을 이해할 수 있게끔 자기는 수차례 퇴고를 하고, 퇴고를 했다고 말한다 말이지요. 그러나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필자의 의도하고 실제로 독자의 반응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는 건데, 적어도 자본론보다는 훨씬 어떻게 보면 쉬운 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여기에는 많은 철학적 개념들이 들어있거든요. 정치철학적 개념들이 들어있어서 적어도 한 백 개에서 이백 개에 걸친 개념어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개념어들을 이해를 못하면 곳곳에서 장벽을 만나기 때문에 다시 링크,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부수적 작업을 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좀 따르는데, 여하튼 문장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글로 되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트가 네그리를 영미권 언어에,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제국의 언어죠. 헤게모니적 언어권 속으로 가져오는데 성공시킨 주요한 인물이다. 근데 네그리가 과거의 오빠라이스모와 더불어서 미국에 대해서 갖는 독특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1980년대 때에 읽었던 책은 독일 책 아니면 소련 책이었거든요. 영미권에서 나온 책은 불신을 해서 읽지를 않았습시다. 일단 무조건 수정주의 딱지를 붙였었죠. 미국은 완전히 오염된 지대이고, 거기서 나온 생각들 자체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보질 않았죠. 좌파서적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오직 원전으로 보면 독일, 그 다음에 현대이야기를 할 때에는 소련, 이 두 부분의 책들만을 탐독을 했었는데, 오빠라이스모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이미 미국을 주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레닌 인 잉글랜드라고 하는, 그래서 빨치에리 같은 사람은 소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자본주의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속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또 그 속에서 형성되는 주체적 움직임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현대의 세계혁명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과거의 맑스가 영국에서 대해서 걸었던 기대하고 유사하죠. 맑스는 끊임없이 영국에서 혁명이 먼저 일어나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프랑스에서 일어났지만

말이죠. 그 다음에는 러시아로 옮겨갔고. 혁명의 동진현상, 혁명축의 동진현상, 프랑스에서 영국은 차티스트운동 있었으니까 맑스가 영 뜬금없는 소리한 건 아니거든요. 차티스트운동은 상당히 레디컬한 운동이었기 때문에 차티스트 운동에서 프랑스의 48년 혁명과 70년 코뮌, 그 다음에 05년도, 1905년도의 러시아에서의 1차 혁명과 17년에서의 2차 혁명, 그러고 나서 혁명의 축은 민족해방운동으로 넘어오게 되서 계속 동쪽으로 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빠라이스모는 다시 서쪽인 미국을 주목한 아주 드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영어세계라고 하는 문제, 중심 국가들과의 도전이라고 하는 문제, 중심적 힘과의 도전이라는 문제를 이렇게 놓치지 않으려고 한, 주변에서의 혁명이 민족해방운동의 주된 생각이잖아요. 주변에서 뭔가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뭔가 포위해 들어간다. 이건 마오주의 이미지죠. 대장정을 통해서 농촌에서 도시를 포위해 들어가는 그러한 혁명개념인데, 이게 주변에서의 혁명을 통한 중심의 고립화와 해체의 작업이고, 이게 사미르 아민라거나 앙드레 군더 프랑크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염두에 뒀던 마오주의적 발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쩌면 맑스의 초기 발상과 유사하게 중심이라고 하는 문제와의 도전을 전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문제하고 하트와 네그리의 결합은 결코 동떨어진 문제는 아닐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3교시: 제국의 방법론적 입장에 대해

#### ▲잠재성virtualities

그럼 우선 이 책에 우리가 사상을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이 책은 형식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읽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한글 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베토벤의 교향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베토벤이 작곡한 교향곡 한 편하고 시스템이 대개 비슷하다. 그래서 음악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마이클 하트는 어떤 인터뷰에서 제국의 구성이 그런 음악적 구성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맨 처음 읽을 때는 그런 식의 관점을 안 갖고 이걸 읽었는데요. 그 인터뷰를 보고 나서 다시 한 번 보니까 그러한 리듬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한 번 살펴보고, 지금 저는 강의 순서를 바로 그 음악적 구조에 따라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서술방법, 이 책을 서술함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 되는 것, 자기의 방법론적 입장이라도 좋겠죠. 방법론적인 입장은 4부 1장에 나옵니다.

4부 1장, 거기 가상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복수가 되어서 이제 버추얼리티스 virtualities라고 되어 있어요. 가상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가상들이라는 번역은 맞지 않습니다. 들뢰즈 강의나 들뢰즈 책을 읽은 분들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들뢰즈는 보통 액추얼actual하고 대비시켜서 현실적인 것하고 잠재적인 것, 그렇게 대비를 시키죠. 그래서 이거는 잠재성, 우리말에서는 복수가 잘 안 살아나기 때문에, 잠재성들 하면 좀 이상하긴 하죠. 잠재력, 이러한 정도의 번역어가 허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버추얼리티 virtuality와 액추얼리티actuality이 대당, 이거는 네그리, 들뢰즈, 가타리 이런 서구철학이 핵심적으로 유지하는 존재론적 범주입니다.

이거는 원래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에서 나왔습니다. 포텐셜potential하고 리얼real하고의 잠재적인 것하고 실재적인 것의 대비였어요(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서구 주류적 사유는 가능한 것이라고 해야 하나요. 가능한 것이 어떻게 실재적인 걸로 전환하는가. 이 점을 철학을 해감에 있어서의 아주 핵심적인 존재론적 뼈대로 삼아왔는데, 베르그송이 이걸 비판을 하고, 그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질 테니까 그냥 건너뛰고, 들뢰즈가 정립한 새로운 구도가 버추얼리티하고 액추얼리티라고 하는 그 구도입니다. 잠재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근데 네그리는 이 구도를 거의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이거를 이원론적 구도에서 삼원론적 구도로 바꾸는데 그게 이제 버추얼리티virtuality, 그 다음에 파스빌리티possibility, 그 다음에 리얼real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다가 이거를 집어넣은 거죠. 액추얼리티를 리얼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 사유방식은 대동소이하고 네그리가 이거를 전개하면서도 들뢰즈의 이분법을 의식하면서 이것과 자기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면서 4부 1장의 버추얼리티, 즉 잠재성 이론을 전개해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운데, 버추얼리티라고 하는 거는 원래 라틴어의 비르vir라고 하는데서 나왔는데요. vir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남자란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어원적인 뜻은 그냥 힘이라는 뜻입니다. 에스페란토에서 보면 남자를 비로viro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힘, 남자라고 하는 건 성차별적인 힘 있는 것이 남자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인식에서 이렇게 통용되었겠죠. 이걸 지우고 보면 힘이란 뜻이고, 여기에서부터 virtue, 우리 보면 덕이라는 용어잖아요. 덕이 있다. 이런 용어도 나오고, 버추얼리티라고

하는 단어가 형성되어 나오는데, 이 잠재성 대신에 잠재력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vir라는 말 때문에 나오는 거죠. 잠재되어 있는 힘, 이것을 지칭하는 거죠. 그러면 잠재되어 있다고 하는 게 뭔가.

### ▲제국의 시선

우리는 분명히 이 책에서 지금 엠파이어Empire라고 하는, 지금 이 그림이 제국의 시선에서 보아진 지구입니다. 지구라고 하는 걸 대상화할 수 있는 권력입니다. 보통 사람은 지구를 대상화 못하잖아요. 자기 개인의 일생, 개인의 삶, 이것조차 대상화하기 힘든 상태에 내몰리죠.

근데 점점 권력을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더 큰 세계를 자기의 오브젝트로,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지금 이런 거는 예컨대 미국의 애슬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이 계속 돌아가면서 지구 지표면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사건들을 채록하고 있는 상태죠. 영상은 물론이고 사운드까지(소리까지) 채록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구글맵 같은 거 보면, 저도 그런 걸 찾아봤는데, 비상업용 구글맵인데도 이 건물의 지붕까지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도 이 건물의 지붕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소만 알면. 상업용은 그거보다 더 진화된 상태, 상업용으로 된 거는 그보다 더 높은 그레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여주고, 군사용은 훨씬 더 하겠죠.

지난번의 이라크 전쟁 때의 후세인 궁궐의 지하부분까지도 구조를 파악해내는 그런 식의 시각, 퍼스펙티브, 비전 이게 제국의 시각에 의해서 형성돼요. 이 눈은 역사적인 것이거든요. 원래 제국이 이런 눈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힘들의 규합과 조직화를 통해서, 지금은 조그만 지구로 나타나지만, 이것을 확장하고 해서 아주 세부까지도 응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된 제국, 이것을 우리는 지금 다루게 될 겁니다. 제국이 어떤 특성, 어떤 메커니즘,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를 앞으로 이야기할 참인데, 엠파이어를 다룹니다. 그런데 엠파이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액추얼한 힘이죠. 아주 리얼한 힘입니다.

제가 방법론으로서 4부 1장이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액추얼한 것이 아니고 잠재적인 거를 다룹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여기 있어요. 멀티튜드Multitude한 거죠. 이 멀티튜드가 엠파이어 속에 있으면서 그것에 대항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는 힘으로, 액추얼리티인 제국을 바꿔나갈 수 있는 힘으로 꿈틀거리고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성으로서 다중을 정의하는 거고, 이 다중이 바로 네그리나 하트가 발을 딛고 있는 일치점이기도 하죠. 제국을 버추얼리티 입장에서 안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버추얼리티 입장에서 제국을 보는 게 아니라 제국 자체에서 제국을 바라본다면 예컨대 자본가들이나 권력자들이나 이런 사람입장에서 볼 때는 잠재성이란 건 눈에 잘 안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그냥 대상, 통치해야 될 무엇으로 보이는 거죠.

예전에 저하고 감옥에서 같이 있었던 한 친구가 청와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시청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자기가 청와대에 가서 보니까 한겨레신문 이하는 없다. 한겨레신문이 수용하는 층이 있죠? 한겨레신문을 읽는 독자층 정도면 한국에서는 약간 중간층 정도이죠. 이 중간층 아래에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김근태 지지자였었는데.

존재하지 않은 걸로 나타나는 그것, 잠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재하는 걸로 나타나는 그것이지요. 제국 입장에서는 이걸 없는 거죠. 대통령 후보로 나간 상당히 많은 후보들 대부분이 저런 잠재적인 것들은 아마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정되는 방식은 기계적 메커니즘 속에서 우리 통치가 고려해야 될 변수로서만 경제를 할 때는 이런 변수를 고려해야 돼. 정치를 할 때는 이런 걸 고려해야 돼. 이런 식으로 고려해야 될 변수로서만, 그 기계적 메커니즘 속에서만 파악될 뿐이지. 실재적 잠재력으로서의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네그리나 하트는 지금 4부 1장에서 잠재력들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방법론적인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여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그리하고 입장이 달라지면 이 글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생각이 분산되게 되죠. 그건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어쨌건 커다란 입장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액추얼리티 입장이나 버추얼리티 입장이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지배 권력의 입장 즉, 주권의 입장인가 다중과 활력의 입장인가. 두 입장에서 갈리게 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읽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무용하다고 봐도 좋을 정도의 격차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큰 입장에서 보면 버추얼리티라고 하는 입장에 설 때에만 이해가 가능한 책으로 일단 타난다.

오늘 보니까 다 다루기가 힘들 것 같은데(아마도), 4부 1장 내용은 다루기 힘들 것 같은데, 좀 더 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방법론적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책의 맨 앞에 와야 할 부분이지요. 근데 왜 이걸 뒤로 빼놨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걸 맨 앞에 서술을 했다면, 지금도 어려워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 없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덮어버렸을 거예요.

왜냐 하면, 짧은 챕터 속에 즉, 451페이지에서 472페이지 약 20페이지 속에 자기의 철학적 입장들, 이것을 다 서술해놨거든요.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책 전체의 기본 퍼스펙티브, 여기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농축되어 있고, 그간 역사적으로 있어온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들에 대한 비판적 대응들이 다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도 나오고, 들뢰즈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니체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업에 대한 얘기 같으면 헤겔의 논법인데요. 헤겔을 재해석하는 어떤, 그래서 철학사 전체를 이 사람들 나름대로 재해석 되고, 비판되고, 새로운 관점으로 이동되는 그런 챕터라서 아마 이 한 챕터만 해설을 하려고해도 책 한 권 정도는 족히 나올법한 압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일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4부 1장입니다. 나머지는 히스토리컬해서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근데 4부 1장만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상당한 철학적 트레이닝을 요구하고 철학사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만큼 실감 있게 이해가 되고,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갖는 의미망이 살아나는 그 장입니다.

맑스의 책으로 보면 그윈트리세 맨 앞에 나오는 정치경제학 비판의 방법론, 그게 3,40페이지 정도 되는 아주 유명한 대목이지요. 이게 그윈트리세 맨 앞에 위치해 있는데, 이거는 거의 꼬트머리에 위치해 있어요. 방법론에 관한 챕터이다. 자기 철학에 관한 챕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서론과 1부 소개

그리고는 서론이 나오는데, 그 서론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서론 전체 번역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가져와서 같이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짧은 서론인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은 다 들어있거든요. 사실은 이 책을 다 읽을 필요가 없죠. 만약에 이 책 뭘지 이해하려면 서너 페이지 되는 서론만 읽으면 됩니다. 골자만 알고 싶은 사람은. 정말 분석해 보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베토벤의 운명교향곡하면 바바바 밤 하는 것 있죠. 그 주제, 테마입니다. 테마가 제시되는 대목인데, 그게 한글 본에는 15에서 25 사이에 있어요. 열 페이지가 채 안 되는 짧은 글입니다. 그 부분 속에서 자기가 이 책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니 왜 썼는지 언제 이 문제를 갖게 됐는지 자기가 하고자하는 얘기는 뭘지가 다 서술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전부 변주입니다.

제1부가, 서론에 주제를 던지고 나서 제1부가 이 책 전체를 다시 길게 변주합니다. 세 부분인데요(그러보면). 제가 방법론이라는 말을 썼지만, 맑스는 이 얘기를 써도 네그리나 들뢰즈는 이 말을 안 좋아합니다. 오히려 그냥 존재론적 입장, 그렇게 하는 게...

입장천명이 4부 1장에서 이루어진다. 고전적, 변증법의 용어를 빌면 방법론이라고 할만한, 우리 왜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 쓸 때 방법론 다루잖아요. 그 부분이 이 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테마가 제시 되는데, 이 테마가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부, 제1부라고 되어 있는 거죠. 1부에서 서론의 구획된 세 파트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소주제라고 볼 수 있죠. 소주제 1, 2, 3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말하면, 정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경제, 세 번째 부분이 대안인데, 이 구조는 아마도 80년대의 전통적 사유를 하는 사람들로서는 예컨대 철학, 정치경제학, 사회주의, 이런 식으로 나누는 그런 사유법하고 유사성을 갖죠. 물론 다릅니다. 여기서는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주권의 이행으로 나타나고, 여기서는 생산의 이행으로 나타나고, 여기는 대항주체성, 이런 식으로 변주가 돼요. 한 번 보십시오.

제1부 1장은 세계질서라고 했죠. 세계질서란 말이 세계가 지금 어떤 식의 질서를 갖고 있냐. 질서라는 말은 오더order인데 영어로, 오더는 명령이라는 뜻도 갖고 있죠. 즉, 어떻게 현재의 삶이 명령되고, 명령 당하고 있느냐. 세계질서란 말은.

### ▲대중multitude을 다중으로

두 번째가 생체 정치적 생산이라고 불렀는데, 이 책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두 개념을 여러분들이 읽을 한글 본과는 저는 다르게 말하게 될 겁니다. 그걸 기억해 두시길 바라는데. 하나는 멀티튜드multitude라고 하는 용어이고, 또 하나는 바이오파워biopower라고 하는 용어예요. 물론 이것은 바이오폴리틱biopolitics하고 분열됩니다.

사실 이 두 개념을 설명하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간략하게 오늘은 이야기하면, 한글 본에서는 멀티튜드를 대중이라고 번역했어요. 대중이라는 말은 흔히 우리가 매스mass라고 하는 용어의 한글 번역어로 사용되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를 다중이라고 앞으로 부를 것이기 때문에, 그 책에서 대중이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이 읽으면서 멀티튜드로 바꿔 읽어야 합니다. 아마 매우 힘겨운 작업이 될 거예요. 지금 매스라는 말은 이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멀티튜드란 책에서는 아예 매스와 멀티튜드가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는 부

분이 나옵니다. 매스라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의 상업세계에서 소비자로 나타나는 사람들의 덩어리를 지칭한다. 그게 1차적인 매스의 정의입니다. 소비자죠. 대중문화,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문화를 소비하는 주체로 나타나죠. Mp3어찌고 해가지고.

두 번째 대중이 사용되는 게 어떠냐 하면, 좌파에서는 전위 대중할 때에 뱅가드하고 매스, 그래서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이끌리고 있는 피동적 존재를 대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중이라는 번역어는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멀티튜드라고 하는 거는 이런 매스, 덩어리 개념하고는 달라요. 이게 아니고, 특이한 것들의 네트워크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이 좀 어렵지만, 우리가 특이한 게 뭘 의미하는지를 말하게 됩니다. 싱귤래리티singularity라고 하는 건데, 특이한 것들, 이거는 어떤 표준, 척도, 일률적인 질서 속에 포획되지 않는 그래서 어떤 좌표의 어떤 위치에 놓여있다고 지정하자마자 그게 딴 데로 이동해서 좌표계에 놓을 수조차 없는 그런 괴물을 지칭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들의 네트워크를 지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합할 수 있는, 양적으로 계량해서 집합할 수 있는 매스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이다. 그런 정도로만 일단 알아두시고요.

#### ▲생체정치biopower를 삶정치로

그 다음 여기 말하는 생체 정치적 생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이오 번역이 어려워요. 바이오 번역이 어렵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말에서 저 바이오에 해당되는 대상적 언어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게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조에zoe하고 비오스bios라고 하는 삶을 지칭하는 두 개의 용어가 나오는데, 조에라고 하는 건 동물적인 삶을 지칭하는 것이었어요. zoo, 주울로지, 동물원 그런 거 있죠. 그런 걸로 발전된 말이죠. 근데 비오스라고 하는 말은 사회적 삶, 개체적이고 생물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아리스토텔레스에 등장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적인 말보다는 정치적인 말을 더 좋아했죠. 정치적인 삶을 지칭하는 말이 비오스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구분법이 서구 진화과정에서 유지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막 뒤섞여가지고 바이올로지할 때 생물학, 생물, 동물에 해당하는 조에에 가까운 말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라고 하는 말에 바이오 에듀케이션, 바이오 다음에 모든 단어를 붙인 지금 연구 경향들이 새로 생겨나서 거의 개념적으로 결합한 모든 단어와 바이오가 지금은 결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생물학에서 바이오가 등장하면 생물이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바이오는 네그리가 하트와 더불어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사회적 삶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삶이라고 하는 말하고 정치를 붙여서 삶-정치라는 말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현대 들어와서만도 여러 변이들을 갖고 있는데, 페미니즘에서 말하는 바이오폴리틱, 푸코에서는 바이오파워라는 말을 거의 만들어 낸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푸코의 바이오파워가 있고, 아감벤이 말하는 바이오파워가 있고 해서 현대의 경향으로 보더라도 다양한 유형의 저기의 대한 경험적 사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나의 한국어로 다 아감벤의 바이오파워도 삶-권력, 이렇게 번역하면 된다. 그건 아닙니다.

네그리가 하트와 더불어 사용하는 바이오폴리틱만은 삶-정치학이라는 표현이 제일 정확하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이해함에 있어서. 저거를 생체정치라거나 생명정치라거나 이렇게 번

역하면 이해가 안 돼버립니다(문맥 속에서).

그래서 바이오파워라는 것도 이 사람들의 책 속에서는 삶-권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제일 포괄적으로 우리들한테 이해가능성을 제공하는 그런 언어이다.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들어가겠는데요.

#### ▲책의 구성

삶-정치적 생산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걸 나중에 비물질노동이니 이런 경우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될 내용입니다. 경제적 부분이죠. 처음 세계질서가 주권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국 안에서의 대안들 그랬죠. 이게 바로 대안에 대한, 대안주체에 대한 서술입니다. 1부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2부로 가면 이게 독립됩니다. 이게 2부의 내용이고, 이게 3부의 내용이고, 이게 4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같은 테마가 최소한 세 번 반복돼요. 서론에서 한 번 천명이 되고, 여기에서 한 번씩 천명되고, 그 다음에 각 부로서 한 번씩 천명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주제가 세 번 반복됩니다.

만약에 방법론에서도 한다면 네 번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반복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여기서는 커다란 시야에서 이 모든 얘기를 뒷받침하는 조명등을 비추는 그런 작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이렇게 세 번 반복되어서 사실 이 책을 읽으려면 만약에 아주 기본적으로 이 책의 주장 몇 가지만 알고 싶다. 그러면 서론만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하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면 1부를 읽으면 됩니다. 1부에서 다 얘기하거든요. 자세하게. 근데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하면 2부, 3부, 4부를 각각을 읽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강의 욕심으로는 오늘 방법론까지 하는 게 제 욕심이었는데, 현실은 그걸 허용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로서는 일단 책에서 아마 4부 1장을 맨 앞에 고집어내면 질려버리겠지만 제가 말로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4부 1장부터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4부 1장에 대한 설명과 서론(테마) 그 두 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론부분은 자세하게 뜯어 읽어서 해설적 강독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그거까지 하고나면 아, 이 책이 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까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